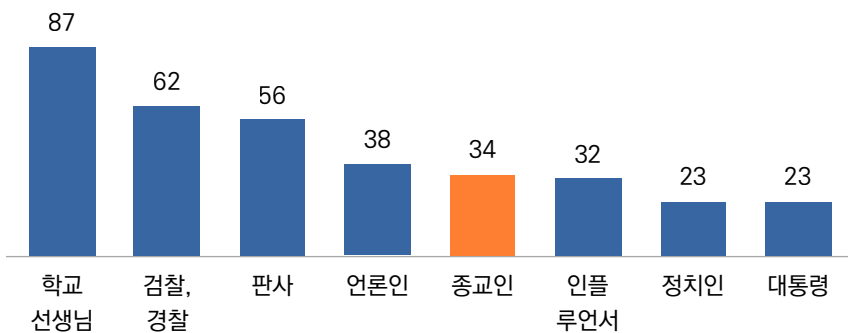




중고생 3명 중 1명만 종교인 신뢰해!

- ▶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, 성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? 최근 발표된 '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'를 통해 살펴본다. 먼저 중고등학생의 직업 신뢰도를 알아보려고 8가지 직업을 제시하고, 각각의 신뢰도를 측정했다. 그 결과, '학교 선생님'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7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'검찰/경찰', '판사' 등의 순이었다. '종교인'은 34%로 중고생 3명 중 1명만이 '신뢰한다'고 응답했고, '정치인'과 '대통령'의 신뢰도는 23%로 최하위를 기록했다.

[그림] 직업별 신뢰도 (중고생, '매우+신뢰한다' 비율*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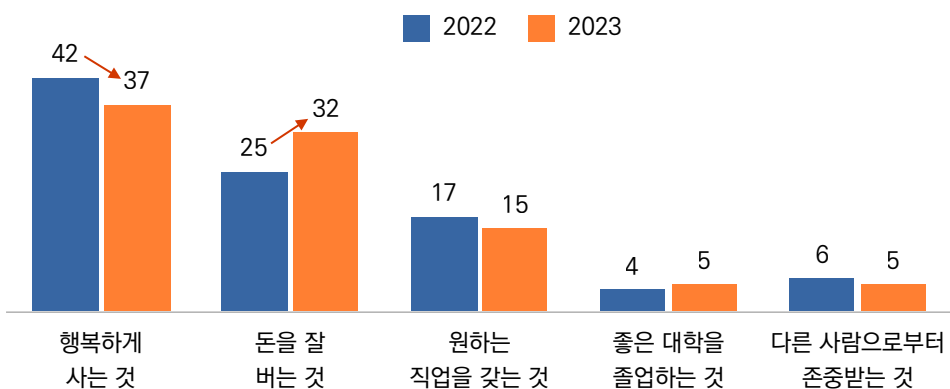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한국교육개발원, '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', 2023.12. (전국 초중고 13,864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19.)

**4점 척도

◎ 학생들이 그리는 성공의 모습, '돈 잘 버는 것' 상승세!

- ▶ 이번에는 초중고학생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다. 성공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질문한 결과 2022년 이어 2023년에도 '행복하게 사는 것(37%)'이 1위였고, 차 순위로는 '돈을 잘 버는 것(32%)', '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(15%)' 등의 순이었다. 다만 전년 대비 '행복하게 사는 것'을 꼽은 비율은 감소한 반면 '돈을 잘 버는 것'에 대한 응답은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.

[그림] 성공의 모습 인식 (초중고생, 상위 5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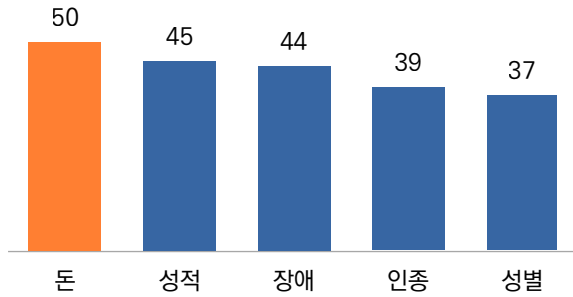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교육개발원, '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', 2023.12. (전국 초중고 13,864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19.)

◎ 초중고생 절반, ‘우리 사회, 돈에 따라 차별한다!’

- ▶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차별적 요소 5가지 제시하고, 각각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, 우리 사회가 ‘돈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’에 동의한 비율이 50%로, 초중고 학생 절반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조건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. 그 외 차별 동의율은 ‘성적’ 45%, ‘장애’ 44%, ‘인종’ 39%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조건에 따른 우리 사회의 차별 정도 (초중고생, ‘매우+약간 그렇다’ 비율**, %)



*자료 출처 : 한국교육개발원, ‘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’, 2023.12. (전국 초중고 13,864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19.)

**4점 척도